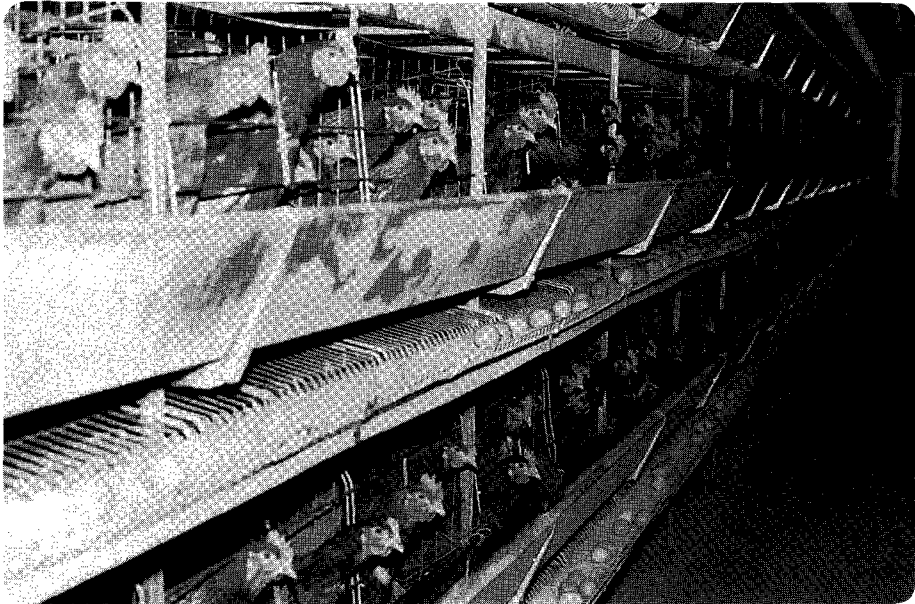


질병발생은 방심에서 온다.

□ 취재/이인수 기자



계사내부가 청결하면 질병발생요인이 줄어든다.

최근 문명이 발달될수록 인간에게도 과거에 없는 신종질병들이 발생되어 때로는 치료의 한계성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요즈음 무서운 질병이라면 AIDS, 즉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양계 산업에서도 '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사육규모가 차츰 대형화 추세로 발전하여 최근에 이르러 규모면에서 보면 육계의 경우 주당 1만수 이상 출하하고 있는 농장도 상당히 많아졌고, 산란계의 경우도 적게는 1만수에서 많게는 30만수까지

사육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양계 산업은 타 축종과 달리 비교적 제한된 면적하에서 대규모 형태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일단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

표1. '80년대 국내 닭의 질병 검색현황

| 질병명 \ 검색년도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
| 세균성 질병 | 40.3 | 29.1 | 34.3 | 27.4 | 41.9 | 40.8 | 42.5 | 41.5 | 33.2 | 33.9 | 37.7 | 35.8 |
| 바이러스성 질병 | 22.4 | 38.1 | 31.0 | 37.0 | 26.1 | 27.4 | 23.5 | 29.6 | 36.3 | 32.0 | 30.7 | 31.3 |
| 곰팡이성 질병 | 0.2 | 0.6 | 1.2 | — | 1.3 | 0.2 | 0.6 | 1.7 | 0.8 | 1.4 | 0.3 | 0.7 |
| 기생충성 질병 | 5.4 | 4.9 | 7.2 | 8.9 | 9.0 | 3.2 | 5.4 | 3.1 | 5.5 | 8.8 | 8.0 | 9.0 |
| 비전염성 질병 | 31.7 | 27.3 | 26.3 | 26.7 | 21.7 | 28.4 | 28.0 | 24.1 | 24.2 | 23.9 | 23.3 | 2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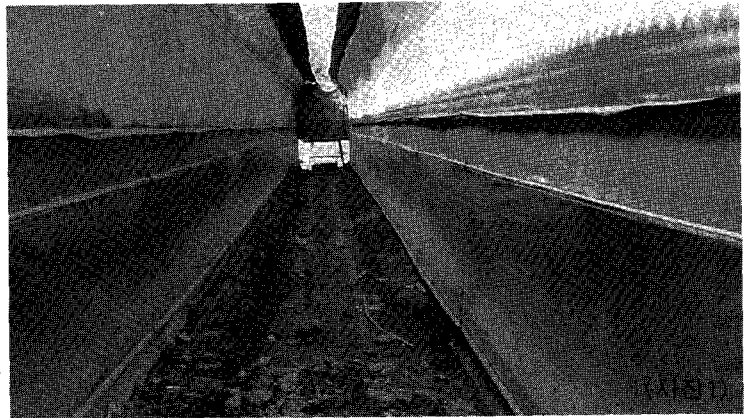
(자료 : 가축위생연구소)

효과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줌으로써 닭이 가지고 있는 경제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아울러 닭이 질병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공적인 양계 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질병을 유발케 할 수 있는 요인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명하여 계사내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일대 산란계농장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였다.

각 농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먼저 기존의 재래식계사로서는 인력난이라든지 계분처리문제 등 생산비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개방화물결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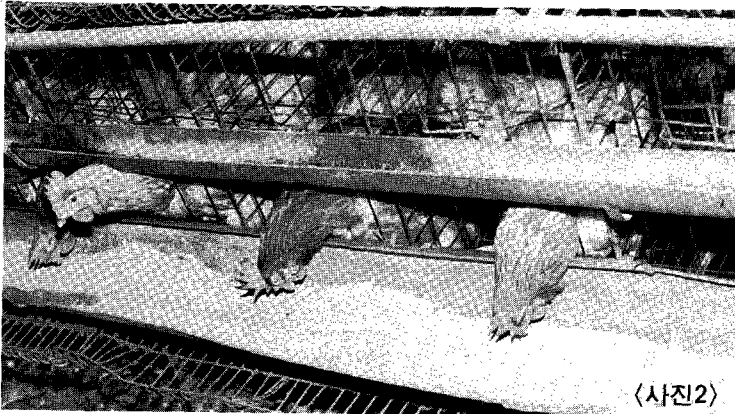
는 높은 파고를 해쳐 나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반드시 시설자동화를 통해 자가노동력을 이용하여 극복해 나가는 것이 팔목할 만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닭의 질병들은 크게 전염성질병과 비전염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염성 질병은 다시 세균성, 바이러스성, 곰팡이성, 기생충병으로 나눌 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년대 국내 닭의 질병 검

색현황을 살펴보면 총 4,161건의 검색건수중 이중 전염성 질병의 검색율이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략 74%, 비전염성 질병이 26%로 나타나 전염성 질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질병들은 어느 한가지 질병증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사진2)



혹은 3가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예방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질병예방”이란 낱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계사주위 정리정돈과 아울러 철저한 소독을 지적하고 싶다. 대부분의 산란계, 육계농장 할 것 없이 계사주위를 살펴보면 각종오물을 비롯하여 폐사한 닭이라든지, 죽은

쥐, 각종 쓰레기, 잡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음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은 질병발생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양계업을 경영하려면 계사주위에 있는 각종 오물을 먼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계사내부로 들어가보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철저한 소독과 더불어 청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계사내부도 외부와 다를것이 없다. 옛말에 “몰라서 행(行)하지 않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實行)하지 않은것이 더 나쁘다”는 말이 있듯이 질병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2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이 농장의 경우 재래식 케이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래되고, 또 낡아 부식되어 급수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가 하면 계분처리문제도 시설낙후, 인력난 등으로 인해 너무 오래 방치하여 암모니아가스 발생요인이 높아 각종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겨울철 보온유지와 무더운 여름철 온도유지를 위해서는 계사지붕에 보온단열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닭이 허약해져 질병에 잘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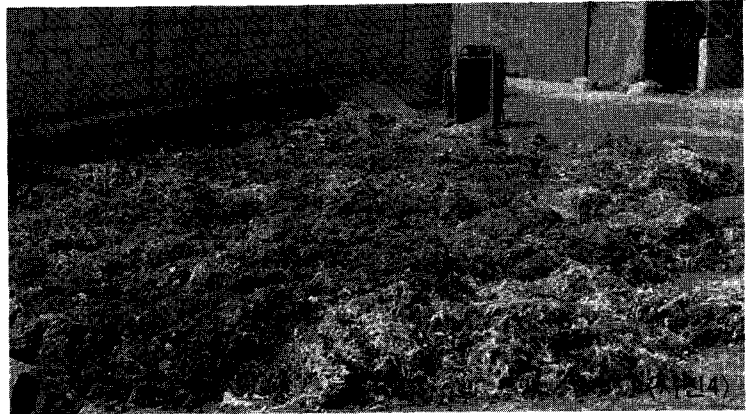
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즉 단열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철에는 온도유지에 신경을 쓰다보면 환기불량, 또 30°C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외부온도가 그대로 계사내로 전달되는데서 오는 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사내부에 들어가서 계사청정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스스로 놀랄 정도이다.

사진3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열은 고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산란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각종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닭의 백신접종은 필수적이라 원칙대로 시행치 않으면 질병발생시 어느 농장할것 없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됨으로 가능한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좋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만 닭의 백신접종프로그램은 품종별로 가급적 각 육종회사가 권장하는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 농장에서는 계분건조장을 설치하여 발효시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부분 재래식 농장에서는 사진4에서 보듯이 계사주위에 야적시켜 방치하여 둥으로써 악취발생은 물론 파리, 모기의 서식처로 제공하여 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여름철 우기에는 빗물과 함께 흘러내려 윤충성 질병과 기생충병을 때로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들은 대개 ND, IB, IBD, CRD, ILT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들어 과거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던 CAA(병아리 빈혈인자), RE, MD, 류코사이토준병 등이 발생하여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질병발생

에 감염될 소지가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과 소독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믿을 수 있는 종계장으로 부터 병아리를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항시 “방심은 금물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농장에서나 조금이라도 방역이라든지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항상 어떠한 질병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오히려 철저한 백신접종, 소독과 함께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통한 질병감시 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질병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양기**